



침침산중

미국프로농구(NBA) 애틀랜타 호크스의 가드 제프 티그(가운데)가 8일 인디애나 페이스서스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잠’ 프로야구 기지개 켜다

9개 구단, 15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

KIA, 오키나와행...윤석민 15일 美 재출국

프로야구가 1월15일 기지개를 켜다. 프로야구 9개 구단이 오는 15일 일제히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이번 겨울 비활동 기간 규약이 엄격히 적용되면서 15일이 D데이가 됐다.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서 83일간의 대장정을 하고 있는 막내 KT 위즈를 제외한 9개 팀이 동시에 캠프로 출발하기 때문에 15일 인천 공항은 프로야구 사랑방이 될 전망이다.

미국행 비행기는 만석이다. NC 다이노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투·포수조, 넥센 히어로즈가 애리조나에 1차 캠프를 꾸린다. 롯데 자이언츠도 플로리다에서 우선 몸을 쫓는다. 이들은 2월에는 오키나와·가고시마·대만으로 건너가 2014시즌을 위한 칼을 갈아둔다.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에는 KIA 타이거즈의 야수조와 한화 이글스가 함께 오른다. 광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다. KIA

투·포수조와 삼성 라이온즈는 광에서 1차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게 된다.

빅리그에 도전하는 윤석민(전 KIA)도 사랑방 모임에 동참한다. 당초 10일 미국으로 재출국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윤석민은 15일로 출국 날짜를 늦췄다.

윤석민은 “국내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다. 미국에서 바로 피칭 훈련을 진행할 생각이다.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훈련을 더하고 갈 생각이야”며 “15일 (공항에서)반가운 얼굴들을 단 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KIA는 D데이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7·8일 KIA는 충남 서산 농장에서 130여 명이 넘는 선수단·프런트가 참가하는 ‘2014시즌 V11 달성 기원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2014시즌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잠시 숨을 고르던 켈린저스 필드도 재개장됐다. 새해 휴식을 즐겼던 신인 선수들과 재활조 선수들은 합평에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며 2014시즌을 열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명단도 확정됐다. 오키나와행 티켓을 받지 못한 이들은 16일 대만으로 넘어간다. 이들은 본진 캠프가 본격화될 2월 중순 이후 연습경기 합류를 목

표로 강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과 오키나와에서 나눠 진행되는 KIA의 스프링캠프는 2월5일 투·포수조의 일본 합류에 따라 본격화된다.

KIA는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주니치·야쿠르트·요코하마는 물론 삼성·한화·LG·SK 등 국내팀들과 연습 경기를 갖고 2014시즌의 윤곽을 그릴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지원실 신설 등 조직개편

KIA 타이거즈가 조직개편을 통해 지원실을 신설하고 스카우트팀을 독립시켰다.

9일 KIA는 1실(운영실) 5개팀(경영관리팀, 마케팅팀, 홍보팀, 운영팀, 육성지원팀) 체제에서 2실 7개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골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기아 켈린저스 필드 등 구장 관리 업무 강화와 스카우트팀 독립을 통한 선수 발굴 및 육성 강화다.

신설된 지원실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홍보팀, 구장지원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효율적인 구장 통합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장 지원팀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운영실은 운영팀, 육성지원팀, 스카우트팀으로 운영된다. 육성지원팀 산하에 있던 스카우트 파트를 독립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이날 운영팀장인 노대권 차장을 부장으로, 마케팅팀 한근고 대리와 홍보팀 이석범 대리를 각각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순간 집중력 저하가 약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히딩크 전감독과 만남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나 귀중한 조언을 들었다.

홍 감독은 9일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히딩크 감독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찾아 한 시간가량 월드컵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홍 감독은 “대표팀 경기 장면을 함께 보면서 히딩크 감독이 보완해야 하는 것들,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줬다”며 “우리 대표팀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집중력 때문에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한다고 했

다”고 전했다.

그는 “히딩크 감독이 한국팀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전제하고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했고 히딩크 감독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해줬는데 대체로 제 생각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표팀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당장 밝히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지성(33·에인트호벤)의 대표팀 복귀와 관련해서는 “대표팀에 들어올지 여부를 제 귀로 직접 듣고 싶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박지성의 합류는 본인 의사

를 직접 들은 후에 판단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간 한국 축구에 많은 공헌을 한 박지성에게도 거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분명히 거치고 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과의 만남은 대표팀이 유럽에서 경기를 가지는 오는 3월께가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박지성이 대표팀에 들어온다면 선수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도 중요하다”며 박지성의 경험과 경기력 두 측면을 모두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톤 두 하티니어르(56·네덜란드) 신

임 대표팀 코치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 미팅을 했고, 그는 자신이 지금 여기서 필요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을 파악한 다음 상대팀 전력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메시 ‘화려한 귀환’

북괴전 후반 4분만에 2골...바르셀로나, 헤타페에 4-0 승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27)가 북괴전에서 화려한 득점포를 과시했다.

메시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3-2014 코파델레이(국왕컵) 16강 1차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46분과 후반 49분 2골을 몰아쳤다. 메시의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는 헤타페를 4-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메시는 바르셀로나가 2-0으로 앞선 후반 19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교체돼 투입됐다. 팬들은 열렬한 환호성으로 축구스타의 귀환을 반겼다. 지난해 11월 초 왼쪽 허벅지를 다쳐 스페인과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재활에만 매달렸던 메시는 59일만의 그라운드 복귀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다.

빠른 발과 현란한 드리블,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뚫고 들어와 승리에 쾌거를 박는 골까지 터뜨리며 부상 우려를 완전히 떨쳐냈다.

메시는 후반 46분 문전에서 마르틴 몬토냐의 발을 맞고 튀어나온 볼을 잡아 왼발로 마무리해 복귀 골을 신고했다. 3분 뒤에는 홀로 볼을 몰고가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재차 골망을 갈랐다. 수비수 4명이 메시지를 에워쌌으나 소용이 없었다.

1차전을 여유롭게 이긴 바르셀로나는 17일 헤타페와 16강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장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깊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인접
-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카페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a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연강,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